



제목	Empress of the East: How a European Slave Girl Became Queen of the Ottoma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asic Books
발행일	2017. 9. 19.
저자	Leslie Peirce
출판도시	New York
페이지수	368
ISBN 또는 ISSN	978-0465032518

**내용 요약**

『동방의 황후: 유럽의 노예 소녀가 어떻게 오스만 제국의 여왕이 되었는가?』는 크리스티고 노예 소녀인 록셀라나(Roxelana 1502~1558)가 술탄 메흐메드 2세의 황후가 되고 셀림 2세(Selim II 1566~1574 재위)의 태후가 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록셀라나는 루테니아(Ruthenia) 지역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되어 이스탄불의 술탄 메흐메드 2세의 하렘으로 보내졌다. 그녀에게 반한 메흐메드 2세는 그녀를 해방시켜주고 결혼까지 하였다. 대담하고 영리한 록셀라나는 메흐메드 2세의 다른 아들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 자신의 아들을 옹립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제까지 록셀라나에 대한 시각은 제국을 파멸의 길로 이끈 요부로 보았지만 저자 피어스는 1530년대 중반 이전 그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메흐메드 2세의 국내 정치에 황실의 여성들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튀르크인들의 성급한 견해가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저자는 그녀를 하렘을 국가의 주요한 지배 기구로 만든 인물로 그리고 있다. 저자는 그녀가 메흐메드 2세에게 헌신적인 아내이자 평생의 충실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유럽의 외교관과 오스만의 논평가들이 그녀의 이중성과 사악함을 강조하였지만, 전쟁 중인 메흐메드 2세에게 보낸 록셀라나의 편지를 볼 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좋은 파트너였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책은 시작, 도전, 정치 부분으로 나뉘고 각각 5장으로, 총 15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성장 과정, 권력을 얻는 과정,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서술되어 있다.